**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 정상**

이곳은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(1,158m)의 가장 높은 지점이다. 맑은 날에는 북동쪽으로 이와키산(1,625m)이 보인다. 서쪽에는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인 원생림이 있다.

시라카미 산지는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.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완충 지대와 보호구역인 핵심지역, 이렇게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. 사전 허가 없이 핵심지역에서 하이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.

시라카미 산지의 대부분은 너도밤나무 노령수로 뒤덮여 있으며, 핵심지역은 8,000년 넘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. 이 원생림은 일본에 남겨진 가장 큰 원생림 중 하나다. 숲이 외진 곳에 있고 사면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주변지역은 일본 혼슈의 마지막 비경 중 하나였다. 하지만 이는 에도시대(1603~1867)까지의 이야기다. 해안을 따라 발전한 마을은 어업과 약간의 임업에 의존했는데, 숲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숲속은 광범위하게 개척되지는 않았다.

깊은 산 속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산에 들어가던 이는 주로 나무꾼과 겨울이 되면 사슴과 곰을 잡으러 산속에 들어가는 사냥꾼인 마타기(일본의 산악지대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단 수렵을 하는 자) 뿐이었다. 그 수는 상당히 적어졌지만, 지금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사냥을 계속하는 마타기도 있다.